

전주시 에너지계획 수립 시민과 함께

'2025 안전도시 시나리오' 시민 참여 워크숍 완료... '내가 만든 에너지, 따뜻한 전주' 등 제안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에너지 사용 주체인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성과 지속성을 갖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전주 2025 에너지 안전도시 시나리오(이하, 전주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한 시민 참여 시나리오 워크숍을 20일 마지막 일정을 끝으로 모두 완료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주의제2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

한 이번 시나리오 워크숍은 지난달 16일과 23일 2월 20일 등 총 3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결정된 10대부터 70대까지의 모든 연령층으로 구성된 시민패널 48명이 적극 참여했다.

시민패널들은 3차례에 걸친 워크숍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예비 특강, 전주 에너지 알아보기, 전주 에너지 미래 상상하기, 전주 에너지 시나리오 결정하기 등 각종 교육과 토론을 통해 최종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들은 에너지자립율과 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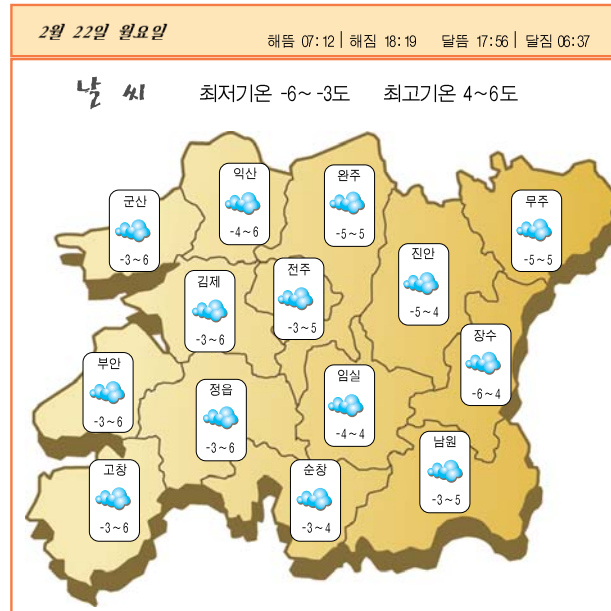
자립율이 각각 13%와 5.8%에 머물고 전력소비율이 연 평균 1.7% 증가하고 있는 전주시 에너지 문제 극복을 위한 '2050 에너지 비전과 목표를 미래세대 위한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99.9'와 '내가 만든 에너지, 따뜻한 전주'로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스마트 에너지 효율을 기기 보급, △에너지복지 시민기금 조성,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에너지계획의 5대 핵심전략과 10대 정책방향, 정책과제 등을 제시했다.

시는 시민들이 작성한 에너지 시나리오들을 지역에너지 계획에 점진적

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 워크숍은 시민이 바라는 미래를 가능케 할 적절한 에너지 시스템을 찾는 과정"이며 "이는 2025년까지의 전주시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되며, 이를 통해 전주의 에너지 미래를 바꿔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지난 2011년 국내 순환발전 사건 등을 계기로 에너지 안전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광역 중심의 전력계통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김영재 기자



김승환 교육감, 누리과정 국고 지원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감들과 대화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1인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를 "정권이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뒤로 돌리고 시도교육청이 당연히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는 것은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유린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된 법률을 위반하라는 것으로 헌법질서를 파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입법권을 유린하라고 시도교육감에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여당이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교육에 써야 할 예산을 보육에 돌려쓰라는 것인데, 결국 예산을 편성하게 해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날 교육부 차관이 '시도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김 교육감은 "정권이 편성하라"고 반박했다.

/고민형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300여명 교원 인사 단행

정읍교육장, 장성렬 번암초 교장·진안교육장, 김선에 전주아중중 교장 등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등 학교 교장, 원감, 교감 등 300여명의 교원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14면)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승진, 전직, 전보, 증임, 퇴직 등 교장, 원감, 교감, 원장 278명, 교육전문직원 26명, 총 277명과 수석교사 28명을 재임용했다.

관심을 모았던 정읍교육장에 장성렬 번암초등학교 교장, 진안교육장에 김

선에 전주아중중 교장이 임용됐다.

세부사항으로는 교장승진 50명, 원감 승진 3명, 교감승진 55명, 교장, 원장 전직 및 증임 50명, 교장전보 37명, 원장전보 7명, 교감전보 49명, 원감전보 9명 등이며, 정년퇴직 교장 80명, 정년퇴직 교감 2명이며 교장교감의 명예퇴직은 8명이다.

또한 교육전문직원인사에서는 장학

관 승진 2명, 장학관 전직 7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 및 전보 61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김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명장 수여식은 24일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고민형 기자

도내 대학교 2015학년도 학위 수여식 원광대, 3582명 졸업

원광대학교 제62회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신명국 원광대학 이사장과 김도홍 총장, 금기창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가족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내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박사 151명, 석사 423명, 학사 3,008명 등 총 3,582명에게 학위가

수여된 이 날 졸업식에서는 원불교학과 김원근 군이 이사장상을 받았으며, 한약학과 강윤미 양이 학업 최우등상으로 총장상을 받고, 경찰행정학과 이예지, 전지빛 제어공학부 손동원, 경찰행정학과 나현후, 체육교육과 박동현 학생이 각각 MIND 역량 총장상을 수상했다.

/익산=정영원기자

군산대 1600여명·군장대 911명

군산시 관내 대학교들의 학위 수여식이 개최됐다.

군산대학교는 지난 19일 아카데미홀에서 2015학년도 전기학위 수여식을 개최하고 졸업생 1,600여명에게 학사 및 석·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군산대학교총동문회장, 군산시장, 군산시의회장,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군산대기성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본부장,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장 및 학부모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인문대 179명, 예술대 102명, 사회대 253명, 자연대 262명, 공과대 483명, 해양대 227명이 학사학위를 수여

받았고 일반대학원,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등에서 70명이 석사학위를, 25명이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같은 날 군장대학교는 학생회에서 이부덕 관동학원 이사장, 김양원 군산시부시장, 졸업생 학부모 등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학위수여식 갖고 911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자동차계열의 송명갑, 박종혁 학생이 관동학원이사장상을 신재생에너지계열 이성호, 호ئل관광과 이주성 학생이 총장상을 수상하는 등 총 61명이 교내 상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산=문정곤 기자

한 해의 흥년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날,
한 해를 기원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올 한해 그대로 이어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안군의회는 군민들의 소망에 대한 염을
희망으로 만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Jinsan Country Council